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 능주·고창·당진에서 / 장학증서 수여



대중회는 지난 7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를 가졌다. 7일 서울을 출발, 당진, 고창, 능주 순으로 선조님들의 묘역에서 참배하며 조상에 대한 숭모정신을 기렸다. 이번 행사에는 14명의 대학생들(男 : 4명, 女 : 10

명)이 참여했으며 대중회 광회(光會) 상임부회장과 성원(成原) 총무, 서울시중회 윤회(允會) 회장, 경회(慶會) 감사가 동행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순례기간 내내 특히 묘역 참배시에 뜨거운 햇볕도 폭우도 학생들을 피해가고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리고 구름만 두둥실 하여 학생들이 참배하는 어려움은 없었다. 첫날인 7일 서울에서 당진에 가는 동안은 맑았고 당진에서 고창으로 가는 동안에는 세찬 장맛비가 쏟아져 내렸으나 고창 3세조 묘역에 도착 무렵에는 비가 그쳤다. 능주에는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 8일에는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린 날씨만 보였다. 선조님들의 묘역을 처음으로 찾은 학생들은 묘역을 둘러보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숭조정신을 기리고 소중한 체험과 공지를 느끼는 값진 교육의 장이 되었다. 첫날 당진 4세조(藝) 묘소와 5세조(榮儉), 6세조(禕) 망제단에서 각각 참배를 하고 이어서 7세조 판안동파조(成亮) 단소에서 참배를 마친 후 신암사로 자리를 옮겨 일운 스님으로부터 신암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신암사에서 준비한 떡과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당진에서 찬회, 본설, 본권 종인과 본찬 대중회 이사가 찾아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본찬 이사는 학생들에게 푸짐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찬회 종인은 학생들에게 꿀 생강차

를 한 병씩 선물하였다. 신암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고창으로 이동하여 3세조(珽) 묘소에서 참배를 하였다. 둘째날인 8일 오전에 능주에 도착해서 시조공 단소에서 참배를 한 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1인당 100만원)를 수여하였다. 능주에는 구교강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과 대구경북총회 남기 총무, 무섭 능주 관리위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구교강 군의원은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대견스럽다고 말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2세조(民瞻)와 사랑과 4세조(天容), 5세조(軾), 6세조(祿), 7세조 사랑과조(英良) 단소에서 참배를 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일가가 운영하는 벽오동(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윤회(允會) 서울시중회장이 제공한 보리밥 정식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동행한 경회 감사가 선조순례행사에 장학성금 100만원을 찬조하였고, 초창기 능성구씨 대학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대학생회 OB회(회장 구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격려금(50만원)을 보내왔다.

부산시중회 정기단합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중회(회장 具樂會)는 코로나로 인한 활동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019년도 5월 이후 4년만인 지난 5월 28일(일)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LG디스커버리랩(구 LG사이언스) 1층 홀에서 자신 대중회장을 비롯해서 락희 회장, 산회, 본학 부회장 등 임원들과 영본 경남중회장,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어린이부터 장년 세대까지의 지역 내 중인 100여 명의 남녀노소 전 세대가 참석하여 오랜만의 만남의 정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식전행사로 종인들의 색소폰 연주와 시 낭송이 있는 후 성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내빈 소개에 이어 국민의례와 숭조의례가 있는 후 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을 뵈니 참으로 반갑다며 모

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라고 기원했다. 자신(滋信) 대중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오늘의 단합대회는 일가 분들이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므로 오랜만에 만난 일가분들과 마음껏 정담을 나누고 푸근함이 넘치는 보람되고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부산시중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날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예산안은 원인대로 통과되었다. 회의를 마친 후 2부 행사로 경품뽑기 행사는 많은 일가 분들이 협찬한 쿠키백, 믹서기, 이불, 나이프, 와인세트, 보온 주전자,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행운상, 희망상, 보람상, 미소상, 웰빙상, 화목상, 단결상, 총화상, 애중상, 숭조상으로 분류하여 추첨을 통해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합대회를 마친 후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며 일가간의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선조순례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성명	성별	학교명	성명	성별	학교명
민정(玟廷,祐)	여	경북대 1년	민지(珉智,敎)	여	수원대 2년
본경(本暎)	여	상명대 1년	본준(本峻)	남	삼육대 2년
본하(本夏)	남	중앙대 1년	예빈(禮斌,祐)	여	안동과학대3년
수진(秀珍,本)	여	중앙대 3년	준모(俊謨)	남	중앙대 2년
지수(知秀,書)	여	한밭대 2년	지연(志妍,本)	여	국민대 4년
찬모(潾謨)	남	성균관대 1년	현진(賢珍,滋)	여	세종대 3년
환희(煥熙,祐)	여	부산대 4년	희진(熙晉,謨)	여	대구과학대4년

경기도중회 정기총회 개최



회고문과 광주, 남양주, 포천, 하남시 등의 지역 중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

경기도중회(회장 本崇)는 지난 6월 11일(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에 위치한 직장공중중회관(KJ프라자) 강당에서 교운, 태

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자학(滋鶴) 총무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이날 새로 정한 회칙을 심의하고 시행키로 의결하였다. 한편 경기도중회는 전국에서 종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역이 넓어 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도종회 총무이사협의회 상반기 모임 개최



전국 시·도종회의 총무이사들로 구성된 총무이사협의회(회장 구옥진)가 지난 6월 9일(금) 오전 충북도종회(회장 구연집) 주최로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반로에 있는 마

중가는길에서 금년도 상반기 모임을 가졌다. 충북도종회에서는 연립 회장과 근로 감사가 참석해서 총무단을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연립 회장은 환영사에서 시·도종회

총무이사님들이 이곳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모임을 통해서 시·도종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충북도종회가 제공한 오찬(한정식)을 하면서 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하반기 모임은 경기도종회(회장 구본승)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는 대구경북종회에서, 하반기는 경남종회, 2025년 상반기는 대전시종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오찬을 마친 후 청남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능주 관리위원 위촉



대종회는 지난 6월 23일 구무섭(具武燮, 謨) 종인을 능주 시조 단역과 2세조 묘역, 재실(영모재), 관리사, 위도, 춘계향사 등을 담당하는 능주 관리위원(문임)으로 위촉했다. 200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우(相祐) 문임이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고령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난 5월 문임 직을 사임했다. 무섭 관리위원은 시랑과 후손으로 KT에서 38년간 근무했다.

한국 효(孝)문화진흥원 감사 취임



구본장(具本璋) 종인이 지난 6월 한국효문화진흥원 감사로 취임했다. 구 감사는 효지도사와 노인심리상담사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 대학원장과 대전 가정법원 조정위원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장을 역임했고 문천군사와 후손이다.

제주도 정선회 묘역 정화사업



도원수와 제주도 정선회(회장 구만홍, 謨)는 지난 6월 4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선영의 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을 하였다. 정선회는 현재 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민족사 사진첩 발행



구자상(具滋相) 종인이 사진으로보는 한국민족사를 사진첩으로 발행했다. 이 사진첩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물을 분야별로, 역대 왕조와 유물 내력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이 사진첩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상 종인에게 연락하면 되고 능성구문의 종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010-5317-6346)



신암사 앞 연못 주변 깨끗하게 정리



본찬(本贊) 이사(당진 거주)가 지난 6월 22일 당진 신암사 앞에 있는 연못 주변에 자란 풀을 자부담으로 깎고 깨끗하게 정리하였다.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구형서(具炯書) 남양주시 도시국장이 지난 7월 1일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구형서 종인은 도원수와 호양공계 도곡문중 후손이다.

화성 세무서장에 부임



구본수 속초세무서장이 지난 7월 화성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본수 세무서장은 좌정승과 후손으로 이천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중부지방 국세청, 중부청, 홍성세무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한국예술문화명인에 등재



류영희 한글 서예가(구본찬 전 대구경북종회장의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한글서예를 꾸준히 해왔고 60여 년간 사회적 활동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예술문화명인에 등재되었다. 호는 혜정으로 지난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혜정 연목회원전을 개최하였다. 혜정연목회는 역사가 40년으로 세계화된 우리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자랑스러운 한글을 바탕으로 한 한글서예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대종회의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서적(성씨보감, 대동보감, 뿌리보감 등)을 만들어 보내면서 종인들에게 문중발전 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들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을 골라 대종회 사무국장 000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보감을 편찬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대종회를 위해서 한 질만 구입해 달라면서 20여 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 종인들께서는 이러한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로 구입하지 마시고 주변 종인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종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서적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전화 : 능성구씨대종회 02-742-6818

알려드립니다

종보는 연 6회, 홀수 달에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료는 1년에 2만원입니다. 종보가 알찬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료 입금계좌 286-910004-14304 하나은행 (예금주: 능성구씨대종회)

>>> 선조순례 기행문

하나의 뿌리, 여러 잎새



구준모(具俊護)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2학년

2023년 7월 7일 능성구씨대중회가 주최한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능성 구문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조에 대한 숭조정신과 자부심을 갖고자 ‘구(具)’씨 성을 가진 여러 대학생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 ‘구(具)’라는 성을 가진, 나와 같은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선조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신기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처음 우리가 모인 장소는 서울 전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 앞이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더운 여름이었지만, 에어컨 바람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비슷하지만 낯선 존재들 때문이었을까? 버스에 올라타니 축축하게 젖었던 나의 뒤통수는 긴장하며 땀을 푸르르 떨어냈다.

버스를 타고 처음 향한 곳은 당진의 경일식당. 메뉴는 삼겹살이었고 너무 배가 고팠던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상에는 이미 음식이 빼곡했고 나의 배고픔을 채족했다. 자리에 앉고 나서는 식당 안에 있는 모든 ‘구(具)’가들이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똑같은 성과 정해진 돌림자 덕분에 이름 석 자 중 하나만 기억하면 됐지

만, 오히려 비슷한 느낌 때문에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웠다.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4~6세 조의 묘소와 단소였다. 버스에서 내리고 시원한 바람에 눈을 떠 바라본 그 광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하얀 구름에 비친 작은 풀들의 색은 초록빛이 돌며 푸르렀고, 그들의 생명력은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작은 고라니는 그곳의 영광에 반하여 놀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쩌쩌게 어디론가 사라졌다. 만약 내가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곳의 계절감을 체온으로 구별하기 없을 만큼 신성했다. 그 잔디를 밟기가 두려워 주춤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니 4세 조의 묘소 앞이었다. 차례대로 참배를 이어 나갔고 묵념하는 각 시간 동안에는 작은 바람을 외쳤다. 이어서 7세 조 판안동파조의 단소로 찾아갔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평탄한 나무로 이루어져 가는 길이 평안했다. 묘 앞에 거슬러는 잡초들을 대중회 임원 두 분이 뽑아주시는 덕분에 진지했던 분위기에서 작은 웃음이 들 수 있었다. 이어 찾아간 곳은 신암사이다. 신암사는 고려 충숙왕 때 능성구씨의 4대손인 구예의 부인 아주 신(申)씨가 가교리에 터를 잡아 지은 유일한 가문의 원찰이다.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부처의 좌상이었다. 깔끔한 기와 아래 활짝 열린 문은 그곳에 찾아온 어떠한 이라도 반겨줄 것만 같았다.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요사채로 들어가 둥글게 앉으니, 그곳 주지스님께서 수박을 대접해 주었다.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들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던 부처의 좌상은 뒷모습일지라도 자꾸만 나의 시선을 앗아갔다. 떠나기 전 스님께 서는 우리에게 콩떡을 주셨다. 절 앞에 있는 돌계단과 주황 꽃잎의 조화로 이뤄진 길에 마주

하니 시선은 하늘에 꽃히게 되었고, 계단 앞 우두커니 자란 나무 뒤 고인 물은 그 위의 하늘을 담고 있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3세조를 참배하러 가는 길, 콩떡의 맛을 보았더니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고창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려 조금 경사진 산을 올라 도착하니 묘소를 둘러싼 돌로 장식은 이전 묘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옆에는 거북 형태를 띠고 있는 석상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하루 일정이 마친 뒤 우리는 내장산 숙소로 이동했다.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던 하루 따뜻한 저녁식사로 마무리하고, 능성구씨 대중회 대학생회에서 회장으로 뽑힌 구환희님이 “우리는”을 선창했고, 우리는 “하나다”를 후창했다. 다들 처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칠 때만큼은 식당에 메아리가 칠 만큼 무렵쳤다. 저녁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선조님에 대해 더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끼리 다시 모여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어색함을 풀니 다음날 동이 뜨는지도 모르는 채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우리는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 모두 모여 밥을 먹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우리가 향한 곳은 시조 단소였다. 예전 할아버지택에 있던 사진에서 보면 붉은 기둥과 그 앞에 큰 나무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먼 역사 속의 사진으로 내가 저 곳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룰 수 있었다. 사진과 달리 그곳은 생각보다 잡초가 무성했고, 벌초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배치된 두 마리의 사자상과 단소를 둘러싸고 있는 단역은 웅장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 보았던 묘소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

였고, 이어 2세조 묘역으로 참배하러 갔다. 가는 길에 있던 거북상과 그 위에 있는 비석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것을 자랑했다. 그 기세를 받아 산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산의 높이 또한 가장 길고 높은 것을 자랑했다. 낮았던 기울기는 점차 높아져 갔으며, 긴장을 채기지 않으면 이곳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2세조의 묘소는 풀이 무성하여 그 주변의 풀을 일일이 제거하기에는 힘들 것 같았다.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마치 그들의 입김이 우리의 살결에 닿는 것만 같았다. 땀이 뻘뻘났지만, 그 묘소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은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 내려와 올라가던 길에 보았던 사랑과 4~7세조 단소에서 참배했다. 그곳은 비교적 풀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흙이 더 잘 보였다. 이튿날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우리의 만남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모두 직감했다. 동시에 아쉬움이 커져만 갔다. 점심식사로 우리는 마지막 오찬을 즐기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대학생 선조성묘 순례행사는 나에게 다양한 의미로 기억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선조의 묘소를 함께 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모두가 진심으로 임한다는 것에 또 감사했다. 이러한 자리의 중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매년 준비해주는 능성구씨대중회의 행보에는 그 어떠한 감탄을 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선조에 대한 지식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자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구씨 일가들의 새로운 인연이 더욱 소중한게 느껴진다.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그 가치를 확신하고 참여해 보길 희망한다.

[성금내역]

(2023.05.20~07.17)

<위선특찬금 - 시조 · 2세조 · 3세조 잔디공사>

준서 광주광역시 신창동	100,000
원회 화성시 기안동	100,000
연집 이사(충북도종회장)	100,000
광남(本) 이사	100,000
자동 부여군 세도면	100,000
자경 청주시 미원면	200,000
본상 아산시 용화동	100,000
정회 여주시 교동	100,000
광웅 부산시 기장군	100,000
익회 고문	100,000
태회 강동구 명일동	100,000
홍서 남양주시 와부읍	50,000
연상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000
건회 이사(판사파종회장)	100,000
정회 대전시 복수동	300,000
봉회 도봉구 창동	50,000
경이(本) 고양시 마두동	30,000
명해(會) 동대문구 이문동	50,000
도원수파종회	1,000,000
길우(滋) 이사	1,000,000
순기 영암군 시종면	50,000
자정 성남시 상대원동	20,000
한회	100,000
광회 은평구 불광동	300,000
문서 부산시 명지동	50,000

본혁 강남구 압구정동	30,000
본능 종로구 서린동	300,000
자홍 아산시 영인면	100,000
연우 성남시 궁내동	30,000
소계	4,860,000
누계	7,860,000

<이사협찬금>

영본(本) 이사(경남종회장)	1,000,000
본승 이사(경기도종회장)	1,000,000
길우(滋) 이사	1,000,000
윤희 이사(서울시종회장)	1,000 000
항모 이사	1,000,000
완회 이사(낭장파종회장)	1,000,000
소계	6,000,000
누계	14,000,000

<장학특찬금>

대학생회OB	500,000
경회 감사	1,000,000
소계	1,500,000
누계	2,500,000

<연회비>

경이(本) 고양시 마두동	30,000
본능 종로구 서린동	300,000
소계	330,000
누계	350,000

<종보구독료>

정회 대경기획 5월	30,000
원회	30,000
관서 남양주시 금곡동	30,000
본길 도봉구 창동	50,000
회용 남양주시 진접읍	100,000
총회	100,000
본천 광주시 오포읍	20,000
자정	50,000
원회 화성시 기안동	100,000
연집 이사(충북도종회장)	100,000
양삼 전주시 장동	20,000
자경 청주시 미원면	100,000
자환	20,000
관석 광주광역시 양림동	30,000
원서 창녕군 남지읍	30,000
본상 아산시 용화동	100,000
정회 여주시 교동	50,000
광웅 부산시 기장군	100,000
익회 고문	100,000
태회 강동구 명일동	50,000
회용 종로구 청운동	50,000
홍서 남양주시 와부읍	50,000
성회 부산시 구서동	100,000
본찬 이사	100,000
송림 상주시 함창읍	20,000
자육 파주시 금촌동	50,000
건회 이사(판사파종회장)	50,000
연학 동대문구 휘경동	50,000
원옥 부산시 반송동	50,000
정회 대전시 관저동	40,000
정회 대전시 복수동	30,000
봉회 도봉구 창동	50,000

명회	50,000
병기	20,000
명해(會) 동대문구 이문동	50,000
철회 인천시 청천동	50,000
본정 대전시 정림동	100,000
차서 진주시 초전동	50,000
원회 영월군 한반도면	30,000
자철 창원시 대방동	20,000
태서 고창군 고창읍	100,000
본찬 대구시	20,000
정회 대경기획 6월	30,000
선모 거창군 신원면	30,000
교창 대구시 상인동	20,000
문서 부산시 명지동	50,000
본혁	20,000
자홍	30,000
자원	20,000
본웅 여주시 하동	50,000
자육 수원시 금곡동	50,000
자홍 아산시 영인면	30,000
연우 성남시 궁내동	30,000
직장공종중	2,000,000
소계	4,700,000
누계	9,530,000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이사협찬금>

영본(本) 이사(경남종회장)	200,000
교운 이사(도원수파종회장)	200,000
길우(滋) 이사	200,000
윤희 이사(서울시종회장)	200,000
항모 이사	200,000
소계	1,000,000
누계	2,200,000



청정 직수얼음으로
제대로 차갑게

100℃ 끓인 물로
제대로 뜨겁게

0도와 100도의 첫 만남



CUCKOO ZERO100
끓인 물·얼음 정수기



투명하고 단단한 래속 직수 얼음
물 속 기포를 제거하는 웨이브 제빙 시스템으로
얼음 생성 시 보다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을 생성합니다.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100℃ 끓인물
기존 커피포트에서만 가능했던 100℃ 끓인 물이 출시되어
커피의 깊은 맛은 물론, 즉석라면, 간편식품까지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렌탈 상담: 플러스친구 이름 쿠크홈스 / 검색용 ID - 쿠크렌탈
www.cuckoo.co.kr m.cuckoo.co.kr

전화 상담만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080-720-9999**